

# 가정의 평화와 안전한 성

교황청 가정평의회 의장  
알폰소 로페스 트루히요 추기경 담화문

과거 20년 동안 증가일로에 있는 에이즈 감염, 국내 에이즈 환자는 2004년 3월 현재 2,540명, 전 세계 증가율은 차치하고라도 한국도 매년 3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인류공멸의 재앙을 막아야 한다.  
이 자료는 '에이즈 예방과 콘돔 사용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고발한다.

번역: 윤 학 식(로마노)  
한국가톨릭병원협회 사무국장

이 글은 요한 바울로 2세 교황님의 서품(敍品) 25주년 기념식에 즈음하여 트루히요 추기경께서 (家庭의 價値와 안전한 성)이란 내용을 주제로 BBC와 대담한 방송 프로그램을 뉴스로 다루는 과정에서, BBC가 가톨릭교회가 주장하는 의도와는 달리 근본적지를 호도하는 편파적인 TV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방영해 추기경께서 이에 문제점을 적시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이를 요약(번역)한 것이다.

**본인** (Alfonso Cardinal Lopez Trujillo, 교황청 트루히요 추기경)은 요한 바울로 2세 교황님 서품 25주년 기념식 전야제에서 BBC와 한 시간이 넘는 대담 프로그램에 응했지만, 정작 TV 프로그램 방영은 <성의 聖域>이라는 제목으로 단지 세 가지 질문에만 답하며 각 질문마다 겨우 일 분도 안되는 시간을 할애하는 등 과도하게 내용을 편집했다. 또한 교회가 일반인의 콘돔 사용을 문제로 삼고 있음과 에이즈 확산으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사실을 크게 왜곡 보도했다.

이는 본인의 대담내용을 다분히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비판하는 분위기를 연출한 것이다. 이 사실을 지켜 본 잉글랜드 및 웨일즈 주교회는 교회에 일방적 편견과 비판의 입장을 견지하는 BBC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BBC가 이 문제로 인해 그간 시청자들을 향해 쌓아왔던 신뢰를 잃음은 물론이고 우리 신자들이

을 분노케 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현대사회의 문란한 성생활의 악습 속에서 콘돔의 과학적 예방기능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입증자료는 지금까지 어느 연구기관도 발표하지 못했다.

본인은 콘돔이 '안전한 성'이라고 주장하는 각국의 정부당국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에이즈 바이러스(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인체면역성 결핍증 바이러스, AIDS: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후천성 면역결핍증)와 악성성병(STD: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균은 콘돔의 피막조직을 통과할 수 있다는 과학적 분석을 인용해 문란해진 성생활의 실태를 고발했다.

그리고 무분별한 성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반복적인 교육을 실천하여 책임감 있는 성생활, 성의 쾌락적 수단화 방지, 합법적인 부부간의 사랑준수 등을 강조했다.

## 에이즈 예방 프로그램, 콘돔 사용에 대한 문제

교회는 에이즈 예방 프로그램의 하나인 콘돔의 사용을 권장하는 '콘돔의 예찬론 및 진흥책'에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세계 각국의 에이즈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특히 남아프리카, 보츠와나, 스위스 등의 주교님들은 에이즈 확산을 전쟁보다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여 콘돔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콘돔 시장주의 국가 정책에 필사적인 대항과 함께 앞으로의 정부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콘돔의 무분별한 사용은 인간존중의 윤리이념에 반하는 적대행위이고 정상적인 성생활에서 자발적인 애정욕구를 파괴시키며 책임을 회피하게 하는 범죄 유발행위이다.

스페인, 필리핀, 미국 등의 주교회의에서는 정부가 콘돔 사용에 장려책을 펴고 있는 것은 심각한 책임회피의 범죄라 지적하고, 부부간에 윤리적 정절을 지키는 것만이 에이즈 확산을 방지하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재삼 강조하고 있다.

콘돔에 대한 교회의 입장은 매우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이뤄진 것이다. 콘돔의 문제점에 대한 잘못된 홍보로 어른들은 물론이고 청소년들이 콘돔을 남용하는 생활습관은 심히 우려되는 사건이나 다름없다. 교제대상을 다양하게 바꿔가며 이뤄지는 문란한 성교제는 사회의 올바른 윤리관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며, 콘돔의 사용 중에 야기되는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채 열악한 위생처리만으로 남용하고 있는 것은 인류공멸의 위험이다.

많은 사람들은 무분별한 성교제 중이라 할지라도 위생관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오관하여 감염위험에 노출되고 그로 인해

희생자가 늘어나고 있다. 콘돔과 관련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제공되었다면 무지로 인해 감염된 환자는 상당수 감소되었을 것이다. 특히 무고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국가에서 희생자가 많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제 더 이상 잘못된 교육과 오용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교회가 유래없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것은 콘돔의 사용이 가정의 출산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가정 내에서 콘돔사용과 여러 가지 피임방법이 남용되는 문제는 가톨릭교회가 계도해야 하는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는 가정의 윤리를 보장하고 사회 및 정치적 논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태아가 여성의 몸에 착상하는 순간부터

## 콘돔의 문제점에 대한 잘못된 홍보로 어른들은 물론이고 청소년들이 콘돔을 남용하는 생활습관은 심히 우려되는 사건이나 다름없다.

하나의 인체가 된다는 점과 한 생명이 성숙할 때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출산만을 독려하는 윤리개념을 강력히 지지하고 협력하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우리는 하느님의 세상창조에 부끄러움이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선을 위하여 사악들은 막아야 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간의 관심, 부부간의 사랑, 책임감, 자유, 건강한 육체 등 이들 모두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이다.

## 콘돔은 에이즈 예방책인가?

콘돔의 문제점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다. 이 분야의 의학연구 실패를 살펴보면 연구분야가 콘돔 제조회사와 이권개입에 연루

되어 있는 부패적 실상을 찾을 수 있으며, 인구 정책과 관련한 가난극복이라는 정치적 문제와도 커넥션이 있어 콘돔의 문제해결 실마리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저명한 성직자이자 밀라노 추기경이신 Dionigi Tettamanzi님은 2000년에 집필한 여러 권의 저서를 통해 콘돔이 에이즈 예방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이탈리아의 보건복지부장관은 성병예방을 위해 의심되는 이성교제에서는 반드시 콘돔을 사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콘돔이 확연한 에이즈 예방책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 먼저 짚어야 하는 문제는 위생상태의 적합성 문제이다. 콘돔은 장벽의 원리 즉 방어적 기능을 활용한

**콘돔의 사용을 통해 에이즈 및 성병의 예방효과를 약 85% 정도까지는 기대할 수 있으나 나머지 15% 정도는 위험에 노출되는 영역이라고 보도했다.**

것으로 사용 중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는 것이 콘돔 예찬론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과연 성교제 중 상호간 에이즈 및 성병의 감염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지는 많은 의혹만 있을 뿐 확신은 없다. 의학계에서도 공식적으로 콘돔은 100%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통계적으로 나타난 결과에서도 15% 정도 예방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고 발표하고 있다. 특히 의심되는 성교제나 무분별한 성교제는 심각한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 한편, 교황청의 생명존중위원회 부위원장인 Elio Sgreccia님은 콘돔의 사용권장 캠페인과 관련한 논평에서 “합리적이고 비생산적인 처사이며 성문란을 야기하는 문제이고 인간존중과 책임의식이 결여된 행동을 조장하는 일”이라

고 강력한 비판론을 제기했다.

하나의 예로써, 한 군인이 정부로부터 콘돔을 받았을 경우 감염을 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떠한 성교제도 합법적일 수 있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반면적 위험이 있다. 따라서 안전한 성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콘돔에 의지하는 것은 죽음과 바람을 피우는 것**

코넬대 소속의 뉴욕메디칼센터에서 성클리닉 프로그램을 설립한 Helen Singer Kaplan 박사는 그가 집필한 <여성과 에이즈에 관한 진실>이라는 저서를 통해 “콘돔에 의지하는 것은 죽음과 바람을 피우는 것”이라고 콘돔의 폐해를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의료저널에서도 콘돔의 문제와 대책의 필요성을 강하게 들고 나왔다.

1988~90년대 전자현미경을 통한 연구에서 콘돔의 재질문제를 적시하게 되었고 에이즈 병원균이 정자 길이의 450분의 1 밖에 되지 않으며 매독균보다 60분의 1 밖에 되지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임을 입증했다. 그러나 <LA타임스>는 미국의 콘돔 제조업체들이 콘돔에 대한 연구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호주의 John Wilks 박사는 실험결과 에이즈균이 콘돔의 피막을 29~89% 통과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Voeller는 1994년에 연구결과를 통해 콘돔의 제작기한의 경과 및 브랜드에 따라 0.9%에서 22.85%까지 에이즈 바이러스 투과율을 보인다고 보고했다.

2000년 6월 美식품의약청(FDA)을 포함한 미국의 4개 정부 공인기관이 공동으로 콘돔과

관련한 제 문제를 다루는 워크숍을 열은 바 있다. 워크숍 보고서에서도 콘돔의 사용을 통해 에이즈 및 성병의 예방효과를 약 85% 정도까지는 기대할 수 있으나 나머지 15% 정도는 위험에 노출되는 영역이라고 보도했다. 그리고 HPV(유두종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콘돔의 사용을 통해 감염률이 낮아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무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美의사그룹 내 10,000여 명의 의사들이 미국의 질병예방통제센터(CDC)가 콘돔의 예방적 효과에 대해 과대평가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에 문제점을 적시하여 CDC가 콘돔의 효과를 과대평가하여 사실을 호도하며 오히려 콘돔의 문제점을 은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 콘돔의 재질도 문제

대부분 사람들은 콘돔이 임신은 확연히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콘돔 사용을 통해서만 완전한 피임이 어렵다는 것을 실험결과를 인용해 보도하고 있고, 실제적인 사용의 결과에서도 임신 가능성은 10~14%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콘돔이 안고 있는 또 하나의 허점, 재질상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콘돔은 라텍스(Latex)라는 재질로 되어 있다. 콘돔의 피막은 실험결과 에이즈보다 큰 입자를 통과시킬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고, FDA에서도 재질상의 결함으로 인한 감염 위험 노출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콘돔은 제조과정에서 품질검사 결과 통상 1,000개 중 4개의 불량까지는 품질통과 기준으로 허용하고 있어 불량품으로 인한 감염률은 빠른 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대주교 Eugenio님은 최근 신문을 통해 브라질 콘돔시장의 불량품 실태를 보고하면서 제3시장에서 생산 유통되고 있는 콘돔의 반품현상의 심각성을 고발했다. 콘돔의 재질인 라텍스(Latex)는 일사광, 열, 습기, 압력, 피임약제, 오존 등으로 인해 변질되기 쉬우며 외적 요인으로 불량품화되기 쉽다. 콘돔의 또 다른 재료인 폴리우레탄(Polyurethane), 램브스킨(Lamb-skin) 등도 문제가 있긴 마찬가지다.

을 고발했다. 콘돔의 재질인 라텍스(Latex)는 일사광, 열, 습기, 압력, 피임약제, 오존 등으로 인해 변질되기 쉬우며 외적 요인으로 불량품화되기 쉽다. 콘돔의 또 다른 재료인 폴리우레탄(Polyurethane), 램브스킨(Lamb-skin) 등도 문제가 있긴 마찬가지다.

혹자는 안전한 성교제를 위하여 콘돔을 동시에 2개 사용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 효과는 아직까지 입증된 바 없다.

### 콘돔에 대한 인식이 중요

콘돔은 앞에서 지적한 재질상 문제뿐만 아니라 사용상에 발생하는 문제 또한 심각하다. 성교제 중간에 콘돔을 사용하는 경우, 사정 후 콘돔을 여성의 질 속에 벗어 두고 성기만을 빼는 경우 등은 잘못된 사용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콘돔이 질 속에서 벗어질 가능성과 파손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혼전 순결유지와 부부간의 합당한 성교제가 아닌 무분별한 성접촉을 남용하는 것은 영원히 구제받지 못할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아프리카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순결/정결 지키기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여 에이즈 감염률을 현저하게 개선한 성공사례가 있다. 에이즈 발병은 현재 아프리카 전 국민을 휩쓸며 창궐하고 있다. 우간다에서는 윤리존중의 전통적인 성생활을 지키고 혼외 및 무분별한 성접촉을 자제해 에이즈 감염률을 줄이는데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매년 30% 이상의 감염율을 기록했으나 2002년 우간다의 수도 캄발라에서는 에이즈 발병률이 8%나 감소했고 지금은 우간다의 어느 지역에서도 두자리 수의 발병을 기록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태국과 필리핀 두 나라의 예를 보면 이들 국가에서 1984~7년 사이에 에이즈 환자가 처음 보고 되었는데 당시 태국은 112명의 환자가 보고 되었고 필리핀은 태국보다 좀더 많아 135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집계되었지만, 2003년 현재에는 태국에 75만 명의 국민이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이들은 대부분이 국가 정책인 콘돔사용 프로그램을 순순히 따랐던 결과 발병률이 높아졌으며, 반면 필리핀은 현재까지 단지 1,935명만이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더구나 필리핀의 인구는 태국보다 30% 정도 더 많고 국민의 콘돔 사용률이 태국에 비해 월등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콘돔의 사용이 에이즈

감염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부연하면 필리핀은 가톨릭국가로서 대부분 국민들이 콘돔 사용에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고 콘돔에 대한 문제와 무분별한 성생활의 문제를 바르게 인도한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기에 감염률 감소의 대업적을 기록한 것이다. 한편, 아프리카의 에이즈 감염의 가장 큰 문제는 예방적 조치가 없이 성교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에이즈는 완치할 수 없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콘돔은 에이즈의 완전한 예방과는 거리가 있다. 감염위험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차선책으로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회는 콘돔 문제의 존재가 기정사실로 입증된 현시점에서 사실의 왜곡을 바로잡고자 한다. 가톨릭교회는 현재 에이즈환자의 25%를 돌보고 있다. 이들 봉사자들은 부부중심의 정조를 지키는 생활을 존중하는 이들이다. WHO가 주장한 바와 같이 정조와 정결을 유지하는 것이 곧바로 성병 감염위험을 제거하는 길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보다 믿을 만한 내용을 인용하면 에이즈를 발견한 Luc Montagnier 박사는 “에이즈는 아직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 청소년의 성문란 행위와 방향의 위험성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Mauro Moroni 교수는 “에이즈는 행위를 통해 감염되는 병으로 유발행위를 하지 않는다

▶ 45p에서 계속

<표 2> 콘돔 사용에 따른 에이즈 환자수 비교

구분	에이즈 환자수		원인
	1984~7년	2003년	
태국	112명	750,000명	국가적 콘돔 사용 프로그램 운영
필리핀	135명	1,935명	가톨릭국가로서 콘돔 사용에 부정적 정서

새로이 실현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겠지만 오늘날 한국가톨릭병원을 “전인치료”의 요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은 임상사목교육일 것이다.

이 교육의 필요성과 바른 인식을 통한 제도

적 보완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또한 가톨릭병원의 의료진들과 임상사목자들은 세상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치유를 제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 본다. 🐦

▶ 38p에서 이어짐

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감염은 멈춰질 수 있다” 라고 말했다.

### 사랑에 대한 책임의식을 일깨워야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는 정조를 지키는 결혼 생활과 가정의 윤리강화가 필수과제이다. 다행히 세계 각처에서 의식있는 젊은이들이 책임감 있는 성교제, 순결, 부부정결 유지 등 윤리부활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결혼생활은 남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가정은 부부간의 사랑과 자녀사랑의 두가지 기둥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은 끊임없이 이벤트를 만들어 가야 한다. 부부간의 사랑은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된다.

즉흥적, 일시적, 방종적, 비윤리적 경향의 사랑이 사회규범을 흔들고 있다. 가정의 보금자리를 자녀사랑 중심의 문화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랑에 대한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교육이 필요하고 여성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청소년 사이의 사교에서 성의 혼란은 매우 심각하다. 올바른 성교육이 필요하다. 교회는 에이즈 감염의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정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근본이다 성스러운 가정을 지키는 우리는 가정의 건전화를 위해 희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통 계 로 보 는 가 톨 릭		가톨릭 신자수		
구분	인구	신자	비율 (단위: 명, %)	
서울	12,488,158	1,428,993	11.4	
춘천	1,162,321	72,295	6.2	
대전	3,327,370	214,788	6.5	
인천	3,686,925	375,313	10.2	
수원	6,406,787	599,044	9.4	
원주	880,473	62,447	7.1	
대구	4,470,061	402,958	9.0	
부산	5,449,037	379,030	7.0	
청주	1,312,162	130,442	9.9	
마산	2,511,095	149,354	5.9	
안동	844,396	44,666	5.3	
광주	3,461,146	300,525	8.7	
전주	1,953,846	163,933	8.4	
제주	552,310	58,512	10.6	
합계	48,506,087	4,430,790	9.1	

\*자료제공: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3년 기준